

# 호르무즈해협서 미국 주도 해상 연합 호위 작전 개시

국제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미국 주도의 해상연합이 선박 호위작전을 공식 개시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이후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며 이 지역 안보 위협도 높아져 왔다. 지난 6월에는 이 지역을 지나던 대형 선박 2척이 피격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미 국무부는 해당 사건 배후를 이란으로 지목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 해군은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걸프 해역을 항행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막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구성된 다국적 지휘통제부 '동맹태스크포스(CTF) 센티널' 발족 기념식을 하고 임무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턱밑인 걸프해역에서 미국 진영의 군사 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같은 달 20일엔 미군 무인기가 이란혁명수비대 공격을 받고 이 지역에서 격추되기도 했다. 이후 7월엔 이 지역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이 이란에 억류됐었다. 이후 미국은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면서 군사 동맹체 설립을 우방에 제안하고 해군력 파병을 요구했다.

미국이 구축한 호위연합에는 사우디를 비롯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영국, 알바니아 등 6개국 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을 호위할 예정이다. 호르무즈해협은 국제 원유 생산량 5분의 1이 통과하는 국제적 원유 수송로다. 일본은 이 동맹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합정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미 해군은 "해상 연합 호위 작전은 악의적 행태를 억제하고 해양 안보와 안정을 도모하면서 아라비아만(걸프 해역), 호르무즈 해협, 바브 알만데브 해협(홍해 입구), 오만만의 공해에서 항행과 교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설명했다.

# 브라질, 최근 4년간 극빈층 100만 명씩 증가

브라질 경제가 사상 최악의 침체 국면에 빠지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극빈층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6일 보고서를 통해 극빈층이 2015년부터 한 해 평균 100만 명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 50%의 3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부유층의 소득은 8.4% 늘어난 반면 빈곤층의 소득은 3.2% 감소했다.

극빈층은 2015년 900만 명에서 지난해엔 1천350만 명으로 450만 명 늘었다. IBGE는 세계은행(WB)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하루평균 소득이 1.9달러 미만을 극빈층으로 분류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에 따른 사회구호 프로그램 축소가 빈부격차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빈곤층·극빈층에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급하는 복지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의 혜택을 받는 주민은 2012년 15.9%에서 2018년에는 13.7%로 줄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극빈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달해 2012년(5.8%) 이래 가장 높았다. 극빈층 비율은 2014년에 4.5%까지 낮아졌다가 이후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IBGE는 소득불평등 심화가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브라질 정부는 내년 '보우사 파밀리아' 예산을 올해와 비슷하게 책정했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줄었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빈곤·극빈층 가구는 올해 1천380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1천320만 가구로 줄어든다.

앞서 IBGE는 지난달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 멕시코 마약갱단에 미국인 집단 살해

멕시코에서 미국인들이 집단으로 살해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멕시코 북부 소노라주에 거주하는 모르몬(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신자들이 결혼식 참석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중 집단 사격을 받고 최소 9명이 숨졌다. 총격은 마약 갱단이 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미국인 일행을 직접 노린 것인지, 오인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12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일부 희생자는 차량 방화로 산 채 불태워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한 뒤 트위터를 통해 "마약 카르텔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때" 라면서 멕시코 정부에 조직 소탕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타주에서 온 멋진 가족들과 친구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던 두 마약 조직 사이에 끼였다."면서 "그 결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이 죽었고 일부는 실종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약 멕시코가 이 괴물들(마약 조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개입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멕시코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마약 카르텔에 전쟁을 선포하고 지구상에서 그들을 쓸어버릴 때"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을 환영하지만 멕시코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화하겠다."면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